

다미키치의 규슈 연고지

수행했습니다!

가토 다미키치는 1804년 2월에 규슈로 수행을 떠나 약 1개월을 걸쳐 규슈 아마쿠사에 도착합니다. 이후, 아마쿠사의 다카하마에 있는 우에다 겐사쿠 가마에서 수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사자노이치 세사라야마의 후쿠모토 니자에몬 가마에서 약 2년간 수행하며 자기 제법의 습득에 힘씁니다.

사자



사자노이치 세사라야마 가마터 (나가사키현 지정 사적)
다미키치가 약 2년간 수행한 가마



사자초 원경



아키움의 삼나무
다미키치가 사자를 떠날 때 심었다고 전해짐

규슈



아마쿠사



다카하마 사라야마 가마터
다미키치가 규슈에서 처음으로 수행한 가마



도코지
다미키치의 규슈 수행의 거점이 된 절

가토 다미키치의 발자취

세토의 도자기 제조소·가토 기치자에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가토 다미키치는 “장남만 가업을 이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가업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치자에몬과 함께 나고야 아스타에서 새 경작지 개발에 종사하고 있던 것을 오와리한 아스타부교 쓰가네 분자에몬의 눈에 띄어 그가 연구하고 있던 난킨야키라고 불리는 도자기 연구를 돕게 됩니다. 이 난킨야키가 바로 소메쓰케 자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801년 9월 마침내 접시 등 작은 소메쓰케 자기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소지나 유약 등 아직 문제점이 많았고 당시 양질의 고급품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규슈의 히젠야키처럼 자기를 구워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1804년 이른 봄, 다미키치는 세토의 가마 가게 동료 들의 지원을 받아 아마쿠사토코지의 덴추오쇼(현재의 세토시 출신)를 의지해 당시 자기 생산으로 앞서 있었던 규슈에 홀로 수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자기 소지 정제법, 유약 조합법, 소성법 등을 습득하고, 1807년에 세토로 돌아 왔습니다.

다미키치에 의해 전해진 히젠자기 제조법 덕분에 세토의 소메쓰케 자기 생산은 급속히 진보하고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다미키치는 세토의 “지소”로 가마가미신사에 모셔져 매년 9월 둘째 토·일요일에 “세토모노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미키치 연표

- 1772년**
가토 기치자에몬의 차남으로 태어남
- 1801년**
아버지 기치자에몬과 함께 아스타에서 새 경작지 개발에 종사함. 소메쓰케 자기의 굽기를 시험해 봄.
- 1804년**
규슈로 수행을 떠남
- 1807년**
세토로 돌아옴
- 1808년**
1대에 한해 성씨를 허용함. 가토 다미키치로 자칭함.
- 1824년**
52세에 사망
- 1826년**
다미키치가 가마가미요하이조에 합사됨



가토 다미키치 동상(가마가미신사 내)
일본의 유명한 조각가인 가토 겐세이에 의해 1937년에 제작되었습니다.